

이번에도... 손흥민 ‘홀대 후 득점’



토트넘의 손흥민이 9일 챔피언십리그(2부리그) 애스턴 빌라와 2016-2017 FA컵 3라운드(64강)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골타임을 소화,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35분 추가골을 넣은 뒤 동료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A컵 3라운드 빌라전 풀타임...시즌 8호골

손흥민이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골을 넣고 있다.

출전 기회를 꾸준히 얻을 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하다가, 벤치 신세를 지는 등 수모를 겪은 뒤에 득점을 터뜨리고 있다. 치열한 주전 경쟁 속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홀대’만 받으면 존재가치를 스스로 증명한다.

손흥민이 9일 기록한 시즌 8호 골도 그랬다. 손흥민은 이날 챔피언십리그(2부리그) 애스턴 빌라와 2016-2017 FA컵 3라운드(64강)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풀타임

을 소화,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35분 추가골을 꽂아 2-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전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펼친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후반 35분 무사 시소코의 오른쪽 낮은 크로스를 패널티지역 정면에서 직접 오른쪽 슈팅으로 연결해 애스턴 빌라의 골문을 열어줬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6골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1골을 포함해 시즌 8번째 골이다. 이날 토트넘 입단 500 일째를 맞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진출 첫 시즌때 기록했던 8골과 동률을 이뤘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홈 경기에서 자존심에 금이 갔다. 당시 그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 선발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2-0으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출전했다. 사실상 ‘시간 끌기용’이었다.

9일 애스턴 빌라전에 출전한 것도 손흥민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이날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정규경기가 아니라 2016-2017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64강) 경기라 무게감이 크게 떨어졌다.

포체티노 감독은 챔피언십리그(2부리그) 소속 애스턴 빌라를 상대로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비주전급 선수들

로 출전 명단을 짰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울분을 경기 속에서 토해냈다. 사실 손흥민의 ‘홀대 후 득점’은 처음이 아니다. 시즌 7호 골도 그랬다.

그는 12월 29일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과 원정경기에서 3경기 연속 선발명단에서 제외되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1로 앞선 후반 29분 경쟁자 무사 시소코 대신 그라운드를 밟아 후반 40분 첫 슈팅을 골로 연결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12월 4일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전에서 터뜨린 시즌 6호 골도 현지 언론의 ‘팀 내 골칫거리’라는 평가를 받은 직후 기록해 의미가 있었다.

‘홀대 후 득점’이라는 손흥민의 득점 공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토트넘은 4-2-3-1전술을 주로 쓰면서 간간히 스리백 작전을 활용하는 3-4-2-1 혹은 3-4-3포메이션을 구사하고 있다. 원톱 해리 케인과 2선 공격수 델리 알리, 에릭센은 최근 물오른 모습을 보이며 맹활약하고 있다. 손흥민은 4-2-3-1 전술 시 2선 공격 라인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싸워야 한다. 스리백을 쓸 경우엔 사실상 자리가 없다.

손흥민의 주전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본인 스스로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WBC 김인식호 향해 시작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향한 국가대표팀의 행차가 11일 시작된다.

9일 오는 3월에 개최되는 WBC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주요 일정이 확정됐다.

11일 오후 12시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진행되는 예비소집이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첫 공식일정이다. 이날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WBC 주요 일정을 브리핑 받고, 유니폼과 단복 등 장비를 시범착용한다. 대표팀 예비소집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투수들이 본격적인 훈련의 스타트를 끊는다.

미국에 스프링 캠프를 차리는 팀의 박희수(SK), 차우찬·임정우(이상 LG), 원종현(NC), 장시환(kt) 등 5명의 투수는 오는 31일 광으로 이동해 2월 9일까지 훈련을 치른다. 선동열, 송진우, 김동수 코치가 이들의 훈련을 돕는다.

내일 예비소집...투수진 판서 31일~2월 9일 훈련

2월 11일 전체 소집...12일 오키나와 캠프 돌입

3월 1~5일 공식 훈련...6일 고척돔서 1R 개막



김인식 감독

이후 2월11일에 전체 대표팀 선수들이 서울 리베라 호텔에 공식 소집된다. 일본 오키나와에 훈련 캠프를 마련한 대표팀은 12일 본격적인 훈련과 연습 경기를 위해 오키나와로 출국한다.

구사카와 구장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대표팀은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19일·오키나와 셀룰러 스타디움 나하),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22일·장소 미정) 등을 상대로 연습경기를 치른다.

요코하마와의 연습경기를 끝으로 오키나와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표팀은 23일 귀

국,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적응훈련 및 평가전을 갖는다. 평가전은 3차례 치러지며 상대는 이번 WBC 대회에서 다른 조에 속한 2개국이다.

이후 3월1일부터 5일까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WBC 참가국들의 공식훈련이 진행된다. 경찰 야구단과 상무를 상대로 한 시범경기도 열린다. 우리나라 대표팀과 경찰 야구단, 상무의 시범경기는 각각 2일과 4일 치러진다.

대망의 2017 WBC 서울 1라운드는 3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막된다.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6일), 네덜란드(7일), 대만(9일)과 안방에서 맞대결을 갖는다. 이후 대회 2라운드는 일본 도쿄에서 전개되며, 준결승과 결승은 미국 LA에서 진행된다.

한편, WBC 서울 라운드 경기 관람 티켓 예매 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더스틴 존슨



김세영

PGA·LPGA 남녀 한 대회 출전 현실화

세계 남녀 정상급 골프 선수들이 한 대회에 출전하는 모습이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이 모나한 커미셔너는 9일 미국 골프 전문 매체인 골프채널과 인터뷰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크 완 커미셔너와 함께 조인트 이벤트를 성사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PGA 커미셔너로 선임된 모나한 커미셔너는 “새해 첫 대회를 남녀가 함께 열어 우승자들끼리의 이벤트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PGA 투어의 2017년 첫 대회로 9일 막을 내린 SBS 챔피언스 토너먼트처럼 지난해 우승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치르는 대

회를 LPGA 투어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대회 개최 시기나 방법, 장소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모나한 커미셔너는 “스폰서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대회 성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해 3월 PGA 투어와 LPGA 투어는 대회 일정 조율 및 이벤트 대회 개최 등 공동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모나한 커미셔너는 “우리는 LPGA 투어와 오랜 협력 관계”라며 “골프가 다른 종목에 비해 남녀가 함께 경기하기에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골프 종목의 발전을 위해서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남 헝가리 폐체신 영입

전남 드래곤즈가 공격력 강화를 위해 헝가리국가대표 출신의 폐체신(31·Robert Feczesin·사진)을 영입했다.



186cm, 90kg로 탄탄한 체격의 폐체신은 헝가리 리그 1위인 비디온의 주전 공격수 활약하고 있으며, 전방에서의 몸싸움과 드리블을 통한 돌파 능력이 탁월하다. 골 결정력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현재 8골 3도움으로 리그에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07-2008시즌 이탈리아 브레시아를 통해 프로에 입단한 폐체신은 헝가리 U-17, U-19, U-21 청소년 대표 및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이탈리아 리그와 헝가리 리그에서 206경기에 출전해 53골을 기록했다.

새 유니폼을 입은 폐체신은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광양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고 멋진 플레이로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보답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K리그에서 8골 이상을 기록하고 싶고 팀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올 시즌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한 노상래 감독은 “지난해 자신들의 역할을 했던 선수들을 모두 잡았고 부족했던 수비는 새로운 선수들로 보강했다. 선수층이 지난해보다 좋아졌다. 선수층에 만족한다”며 “특히 자일과 호흡을 이룰 폐체신 선수의 합류로 전남의 공격력이 배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버풀의 ‘수모’

4부리그 팀과 0-0 무승부

리버풀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4부리그 팀과 경기에서 비기는 수모를 당했다.

리버풀은 9일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64강) 4부리그 플리머스 아가일과 경기에서 0-0으로 득점 없이 비겼다.

현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위에 오르며 우승 경쟁을 다투는 리버풀은 이로써 FA컵 32강 진출을 위해 원정 재경기를 치르게 됐다. 리버풀은 이날 주전들을 대거 빼고도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다. 후반에는 대니얼 스타리지와 로베르토 피르미누 등을 투입하며 골을 노렸지만, 실패로 끝났다.

첼시는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릿지에서 열린 3부리그 피터보로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4-1로 승리하며 32강에 올랐다. 첼시는 후반 22분 존 테리가 퇴장을 당해 수직 열세에 놓였지만 페드로 로드리게스의 2골 1도움 활약을 앞세워 대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SBS 챔피언십 우승

토마스 랭킹 12위로 정중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대회 우승자인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세계랭킹을 10계단 끌어 올렸다.

PGA 투어 SBS 챔피언스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한 토머스가 9일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제이슨 데이(호주),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더스틴 존슨(미국)으로 이어지는 1~3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 선수 중 랭킹이 가장 높은 안병훈은 1계단 내려간 47위, 김시우는 52위로 지난해보다 1계단 올라갔다.

여자골프 랭킹은 리디아 고(뉴질랜드), 에리아 쭈타누칸(태국), 전인지(한국)로 ‘톱 3’를 비롯해 12위(양희영)까지 변동이 없다.

/연합뉴스